

세계최초 '전면 얼굴이식 수술' 남성 TV 출연

의사와 얼굴 기증자 가족에 고마움 표해



세계최초 전면 얼굴이식 수술을 받은 오스카 출처 =BBC

[아시아투데이=김수경 기자] 세계최초로 얼굴 전면 이식수술을 해 화제를 모았던 스페인 남성이 TV에 출연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 판 보도를 통해 얼굴 이식 수술을 한 남성 오스카(31)씨가 TV에 출연해 성공적인 수술 후 모습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카는 5년 전 총기사고로 코와 입술 등 얼굴 전면의 피부와 근육이 완전히 파괴돼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오스카는 이전에 받았던 9번의 수술이 모두 실패로 끝난 후 얼굴 전면 이식수술을 받았다. 3월 20일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그의 얼굴이식 수술에는 30명의 전문의가 투입됐으며 수술은 24시간 동안 이어졌다.

배렛 박사의 주도하에 진행된 수술에서 오스카는 근육, 코, 입술, 턱, 입천장, 치아, 턱뼈 등을 이식받았으며 성형수술 기법을 이용해 아래턱뼈와 신경혈관 등을 수술 받았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은 "얼굴 기능의 90%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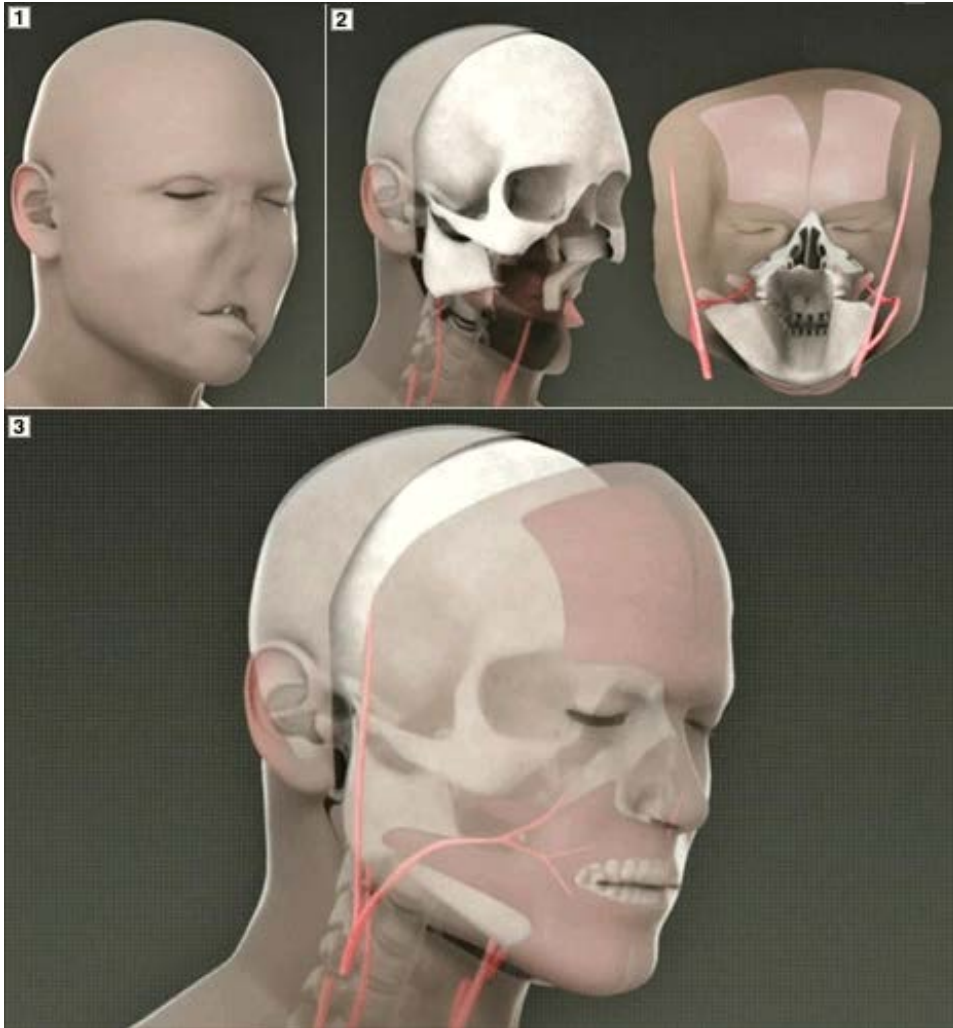


그는 TV에 출연해 자신에게 새로운 얼굴을 준 바르셀로나 발 헤브론 대학의 의료진과 자신에게 이식을 허락한 기증자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수술에 도움을 준 의사와 병원 관계자, 이식 기증자의 가족, 그리고 나를 돌봐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오스카는 수술을 받은 후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달 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도 얼굴 부분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는 몇 번 있었으나 전면 얼굴이식 수술을 받은 것은 오스카의 경우가 세계 최초다.

한편, 지난 2005년 프랑스의 이사벨 디노어(38)라는 여성이 개에게 물린 후 성공적으로 얼굴 부분 이식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오스카의 수술 과정

1. 총기 사고로 턱과 코를 포함해 얼굴 전면이 일그러진 환자
2. 기증자들이 기증한 얼굴 피부, 근육, 코, 턱뼈, 치아, 광대뼈 등을 환자의 얼굴에 이식한다. 얼굴의 구조를 받쳐 줄 수 있는 금속판을 심는다.
3. 기증자들의 혈관과 신경과 피부를 환자에게 이식한다. 환자는 평생 동안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을 복용해야 한다.